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다시 읽는 여성 작가

김은하 1950년대와 나쁜 여자의 젠더 정치학

: 강신재의 초기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김양선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

—전쟁, 여성, 선정주의는 어떻게 여성문학의 전통이 되었나

1950년대와 나쁜 여자의 젠더 정치학

: 강신재의 초기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김은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목차

- 1 1950년대 여성문학 연구의 어려움
- 2 “여류”로 환원되지 않는 낯설은 문장들
- 3 부인 내실의 글쓰기와 불안의 상상력
- 4 나쁜 여자라는 전략의 양가성
- 5 결론

1950년대는 식민지기와 비교해서 수적으로 많은 여성 작가가 데뷔해 문단과 독서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던 여성문학의 르네상스기였다. 그러나 1950년대 여성문학은 “부르주아 여류”라는 명명(命名)의 젠더 정치로 인해 적극적으로 평가되지 못했다. 더욱이 모운숙, 최정희, 장덕조, 손소희 등 여성문학 장에서 주류를 차지한 작가들은 연성(軟性)의 힘을 동원한 전쟁에서 ‘전사로서의 남성성’을 찬미하며 전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문화 활동에 나서 한반도에 냉전체제가 형성되는데 공모했다는 것도 그 이유였다. 그러나 강신재, 박경리 등 신진 여성작가들은 해방기 남녀평등의 이상이 좌절되고 성차별주의가 사회의 정상 질서인 양 작동했던 전후 냉전체제 하에서 여성이 처한 억압적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가부장제 사회에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여성 글쓰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

이 글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 여성문학사에 대한 다시 읽기의 일환으로서 여성 작가의 ‘저자성’ 획득과 여성문학의 정전(canon)화를 염두에 두고 강신재의 초기 단편 소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신재는 그간 여성적 섬세함과 부르주아적 세련됨으로 여성의 운명을 그리는 여성 작가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작가 자신은 여성의 운명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인간의 생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듯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포착”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강신재는 진화심리학자처럼 경쟁과 유혹의 전략을 통해 사회의 도덕 규범을 어지럽히는 색정증적 여성들을 즐겨 그렸다. 그러나 같은 성 내 경쟁(intra-sexual competition)과 다른 성에 대한 유혹과 질투 같은 성 전략(sexual selection)이 성공적인 짝짓기, 즉 종족 번식을 위한 투쟁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강신재 소설은 진화론과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번식상의 목표와 무관한 성적 쾌락에 대한 추구는 ‘나쁜 여자’가 여성성 규범을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가부장제 바깥에 서기 위한 여성의 해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문핵심어: 강신재, 1950년대, 여성작가, 여성문학, 나쁜 여자, 앤솔로지, 저자성 등

1 1950년대 여성문학 연구의 어려움

1980년대 중반에 진보적 학술운동의 흐름과 함께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등장하면서 한국문학사에서 거의 잊혀졌거나 무시되었던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이 발굴되고 읽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불명예스러운 소문으로 국문학사의 주변을 배회했던 신여성 작가들이 문학 정전에 포함되는가 하면 식민지기 여성 문단에 대한 문학적 지도가 완성됨으로써 한국여성문학사의 전개와 흐름을 계보화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 그러나 식민지기의 다음 단계인 한국전쟁 이후, 즉 1950년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1950년대는 식민지기와 비교해서 수적으로 많은 여성작가가 데뷔해 문단과 독서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했던 여성문학의 르네상스기였다. 여성작가들은 ‘본격문학’에서 부지런히 활동하기도 했지만 다산(多産)이 체질인 듯 미디어에 많은 작품을 발표해 대중 작가로서의 ‘저자성(authorship)’을 과시했다. 버지니아 울프는 18세기 말에 소설이나 조야한 대중소설 혹은 잡문을 써 돈을 벌기 시작한 여성들이 출현한 것을 영국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이나 장미 전쟁보다 더 중요한 사건으로 꼽은 바 있는데¹ 한국에서도 비록 소수이지만 글을 써서 돈을 버는 여성작가가 집단적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여성문학은 적극적으로 평가되지 못했다.

박정애는 이천년대 초반에 1950년대 여성문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상당한 재력과 품위를 가진 가정, 전후 문단의 보수적 헤게모니와 상충하지 않는 계급적 성향, 사회와 남성 문인들의 눈 밖에 나지 않는 조신한 사생활 등 이 시대 부르주아 여성작가군의 차별성”은 “사회성과 민중성을 중시하는 우리의 문학 풍토 속에서 진지한 연구와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문학적 불운의 빌미를 제공했다”²고 쓴 바 있다. 박정애의 이와 같은 서술은 1950년대 여성문학

1 버지니아 울프는 고정된 수입이 보장될 때, 여성이 독립적인 정치적, 경제적 주체가 됨으로써 집안의 천사라는 유령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했다. 버지니아 울프, 이미에 역, 『자기만의 방』, 민음사, 2006, 100쪽 참조.

2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52쪽 참조.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진보적 페미니즘 연구자의 고뇌가 담긴 고백에 가까운 것이었다. 식민지기 신여성 작가인 나혜석이 “우리 조선 여자도 인제는 그만 사람같이 좀 돼 봐야만 할 것 아니오?”라고 반문하며 “민건대 먼저 밟으시는 언니들이여! 폭폭 디디어서 뚜렷이 발자취를 내어주소. 좀체름하게 또 눈이 오더라도 그 발자국의 윤곽이나 남아 있도록”³ 이라고 동시대의 신여성들을 향해 선각자가 되자고 부르짖었던 1910년대 후반에 비해서 전후 여성작가들은 가부장제 사회에 타협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규범적 여성성에 저항하고 일탈한다는 점에서 ‘신여성’을 자처하기보다 “여류” “규수”라는 명명(命名)에 순응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⁴ 더욱이 모운숙, 최정희, 장덕조, 손소희 등 여성문학 장에서 주류를 차지한 작가들은 정치, 경제, 군사뿐만 아니라 헤게모니의 확립을 위해 문화, 예술, 교육, 오락, 라이프스타일 등 연성의 힘을 동원한 전쟁에서⁵ ‘전사로서의 남성성’을 찬미하며 전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문화 활동에 나섬으로써 한반도에 냉전체제가 형성되는데 공모하는 오점을 남겼다.⁶

3 나혜석, 「잡감(雜感)」, 『학지광』, 1917.3. 이상경,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187-188쪽 참조.

4 전후 한국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여성작가들은 1965년 9월에 여성 작가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여성 글쓰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여류문학인회’(발기인: 강신재, 김남조, 김후란, 모운숙, 박경리, 박화성, 손소희, 이영희, 임옥인, 전숙희, 조경희, 최정희, 한말숙, 한무숙, 홍운숙)를 발족해 다양한 장르에서 여성 글쓰기의 성과작을 모아 여성문학사 앤솔로지(『한국여류문학전집』, 1967)를 6권으로 발간하지만, 자유연애로 ‘소문난 여성’이었던 제1기의 신여성 작가(김명순, 나혜석, 김일엽)를 여성문학 ‘정전(canon)’에서 배제함으로써 선배 여성작가들과 구별되는 “규수작가”의 정체성을 추구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자세한 논의로는 김양선의 글을 참조할 것. 김양선, 「전후 여성문단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182-207쪽.

5 김려실, 「아시아 냉전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로컬리티의 인문학』 제1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316쪽.

6 한국전쟁기에 장덕조, 최정희, 손소희를 위시로 한 여성 종군작가들의 정치 활동과 글쓰기에 대한 연구로 다음을 참고할 것. 박정애, 「‘동원’되는 여성작가: 한국전과 베트남전의 경우」, 『여성문학연구』 제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69-87쪽; 김양선, 「한국전쟁기 여성문학 장의 형성」,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154-181쪽; 엄미옥, 「한국전쟁기 여성 종군 작가 소설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그러나 해방과 전후에 등단해 1950년대에 활약한 신진 여성 소설가들(강신재, 박경리, 한무숙, 한말숙 등)은 최정희나 장덕조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이력으로부터 자유롭다. 1950년대의 여성작가들은 해방기에 ‘여성해방 없이는 완전한 민족해방도 없다’는 슬로건 속에서 ‘노라’의 자유가 운위되었지만 여성 시민권 획득의 가능성이 타진되기도 전에 한국전쟁으로 냉전질서가 형성되어 성차별주의가 사회의 정상 질서인 양 작동했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⁷ 여성 글쓰기의 저항성을 보여주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해방기에는 ‘모국어 부재의 국문학’에 대한 비판 속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민족문학의 수립이 문단의 과제로 떠올랐지만⁸ 세계적 냉전구조가 형성되고 좌우익 이념의 대립 속에서 ‘문단의 분단’이라고 할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진보적 문예운동이 설 자리가 없었을 뿐더러⁹ 반봉건이나 젠더 이슈가 다루어지지 못했다. 2차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족적 해방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이 고조되고 여성의 권리가 높아진 것과 무관하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냉전이 고착화되면서 페미니즘은 부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1948년 남북한 단독 정부가 수립된 후 남한 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가정 내 어머니의 역할로 한정지어짐으로써 여성문학은 여성의 자기 해방이 아니라 보수적인 성규범을 여성 독자에게 주입하는 가부장적 문화 장치로서 기능하게 되었다.¹⁰ 휴전 이후에는 탈식민 민족의 복원이라는 미명 하에 가부장제

제2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261-292쪽 참조.

- 7 전쟁의 작동 원리는 인간의 특성을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분리하고 위계화하는 성차별주의에 있기 때문에 성차별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페미니스트 평화학 연구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베티 리어든, 정희진 기획·감수·해제, 황미요조 역,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 나무연필, 2020.
- 8 김병익, 『한국문단사 1908-1970』, 문학과지성사, 2001, 250쪽 참조.
- 9 전쟁과 분단은 남한 문단에서 진보적 문예운동 조직의 철저한 파괴 및 진보적 문학 이념의 완벽한 단절을 초래하였다.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문단의 분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로 인해 남한 문단이 안게 된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염무웅, 「5,60년대 남한문학의 민족문화적 위치」, 『창작과비평』 제78호, 창작과비평사, 1992, 50-64쪽.
- 10 해방기에는 남녀평등을 골자로 한 여성문화론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여성의 기대를 모았지만, 해방기의 여성문화론은 비평이나 운동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문화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김양선은 해방기 여성문단의 주요 작가였던 김말봉과 최정희의 집

가 전통으로 재창안되고, 해방과 전쟁으로 서구 문화에 노출된 여성들을 차별하는 풍기문란의 정치가 사회 재건의 외피를 두른 채 가동됨으로써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정치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 속에서 여성 작가들은 특정 남성 문인의 추천에 의지해 작가가 되고, 남성적 문단의 인정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작가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던¹¹ 문단의 주변인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저자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진보적 페미니스트 국문학 연구자들에게는 ‘저자성’이 남성으로 표식되는데 저항하고, 여성 글쓰기의 불온성을 찾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1950년대 여성작가들의 ‘체질화한 정치적 보수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내면화된 자기 검열’에 대한 의혹은 연구의 걸림돌이 되기에 충분하다.¹² 그러나 “부르주아 여성작가”라는 명명(命名)은 당대 현실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것이자, ‘젠더’와 관련한 의제는 계급이나 이념 같은 거대 서사와 교차해 다룰 때만 가치가 있다고 보는 진보적 학술운동의 남성중심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여류문학”이라는 명명은 여성 작가가 더 이상 희소성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면서 여성의 사회 활동을 ‘유한 마담’의 속물적 과시 욕망으로 폄훼하는 반격의 젠더 정치이자, 여성작가는 사회나 역사의식이 약하고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 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목직한 의미를 갖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여성의 글쓰기

필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 문단이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 어머니의 역할로 한정 짓고, 문학을 탈정치화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여성성과 문학을 정치화하고 있”(141쪽)다고 하며, 이러한 현상을 ‘여성성의 제도화’로 명명했다. 김양선, 「해방 직후 여성문학/문학 담론의 양상」, 앞의 책, 129-153쪽 참조.

- 11 등단 제도가 다양하지 않고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여성작가들은 주로 문단 내 실력자의 추천을 통해 통해 작가로 데뷔하고 인맥 관계를 통해 작품 활동을 이어갔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회고담에 의하면 강신재, 박경리, 한말숙 등 여성 작가들은 친분을 징검다리 삼아 우익 중심의 문예지 『문예』의 실질적 권력이었던 김동리에게 작품을 보내고 그의 추천을 통해 문단에 데뷔할 수 있었다.
- 12 식민지부터까지 남성중심적인 문단은 여성작가를 스캔들화된 존재로 조목화하는가 하면 “여류작가” “규수작가”라는 우아한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여성문단을 남성문단과 구별지어 문학 장에 여성이 끼어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여성의 글쓰기를 ‘관리’하고자 했다. “여류문학”이라는 명칭은 여성의 글쓰기는 개인의 탁월성이나 미적 독창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함축한 것이었다.

를 이류화하는 낙인의 언어이다. 그러나 자기 작품의 상당수는 원고료가 필요해서 쓴 것이라고 자조했던 박경리를 떠올려 보면 계급적으로 부르주아인 여성 작가가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한무숙, 한말숙, 강신재 등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는 세칭 “귀부인”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출신 가문이나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여성의 글쓰기를 결정한다는 가정은 여성을 단독적, 자율적 개인으로 보지 않는 여성 혐오적인 시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주로 여성의 생활 세계나 내면을 중심으로 한 여성작가의 글쓰기를 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꺼리는 보수주의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쟁미망인인 작가 자신을 연상시키는 이야기를 주로 쓴다는 점에서 ‘사소설’ 작가로 비판받았던 박경리가 “이곳 풍토(風土)에 있어서 과부란 인권유린의 대상으로 예각과도 같은 존재”로 자신은 어머니처럼 타협하지 못해 세상의 말들이 “피멍이 되어”(138쪽) 아프다고 토로하며, 자존을 지키기 위해 자기에 대해 쓴다고 했던 것은¹³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기억될 필요가 있다.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격동의 사건 속에서 남자들이 전장으로 끌려나가 참호 속에 묻히거나 갇히게 되자 여성들은 일상의 붕괴를 경험하며 ‘여염집’ 딸과 ‘음전한’ 가정 부인의 위치에서 미끄러져 생활을 이끌어 가야 할 가장이 되었다. 한국전쟁에 관한 박완서의 자전성 짙은 여러 소설들에서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지지고 여염집 처녀에게 추문과 다를 바 없는 미군 부대의 문턱을 넘는 “피엑스 걸”처럼 여성들은 전쟁이라는 폭력적 사건을 통해 근대로 사회이동한 것이다. 그러나 전후 가부장적 젠더정치 속에서 전쟁미망인, “양공주”, “피엑스 걸”로 신분이 전이되며 여성들이 겪은 전쟁은 공감을 받거나 애도되지 못한 채 ‘순결한 민족’이라는 이상을 흠집내는 외상(外傷)으로 간주되어 억압되었다. 여성들의 전쟁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감시를 강화하고 여성의 정조를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가부장적 법이 제정되는 동기로 작용했다.¹⁴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여성작가는 ‘내실’, 즉 여성적 세계에서 직접 체험하거나 느꼈던 이야기밖에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창조성이

13 박경리, 「나의 문학적 자전」,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나남출판, 1994, 128-146쪽 참조.

14 박정미,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사회와역사』 제94호, 한국사회사학회, 2012, 276쪽 참조.

부족하다는 통념에 저항하는 한편으로, 1950년대 여성문학이 여성이 처한 억압적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가부장제 사회에 균열을 내며 여성 글쓰기의 정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여성문학사에 대한 다시 쓰기의 일환으로서 여성작가의 ‘저자성’ 회복과 정전화 작업을 염두에 두고 강신재의 초기 단편 소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⁵ 후기구조주의에 의해 ‘저자의 죽음’이 선포된 후 텍스트의 의미를 이면에서 장악하고 조종하는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저자’ 개념은 낡은 것이 되고 ‘독자’의 해방이 이루어졌다. 이제 예술은 특정한 작품을 쓰는 특정한 유형의 개인으로서 ‘저자’가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라 집단이나 민중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텍스트’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자’가 고뇌에 찬 남성 문사, 반역의 열정이 가득한 남성 혁명가로 상상되는 오래된 ‘전통’을 염두에 두자면 페미니스트 문학 연구자가 ‘저자의 죽음’ 선포에 동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아직까지 창조된 적이 없는 여성 저자를 살해하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저자성은 여성주의 공구상자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자 여성작가들이 직면했던 부당함을 추적하는 한 방식이며, 보다 적절하고 포괄했던 학문 형식을 향해 전진하”기 위한 개념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¹⁶ 이렇듯 저자를 신화화할 수도 그렇다고 저자를 폐기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적 상황을 리타 펠스키는 여성 저자를 재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저자를 창조”함으로써 돌파하고자 했다. 여성이 지닌 상상력의 힘에 주목해 여성 인물을 여성 저자의 알레고리로서 보는 식의 접근을 통해 ‘다락방의 미친 여자’, ‘가장무도회 하

15 2000년대에 들어 문학사 서술의 민족주의, 중간계급, 엘리티시즘,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서발틴의 역사’ 혹은 ‘타자의 역사’에 주목하는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쓰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이에 대해서는 천정환·소영현·임태훈 외,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한국 현대 문학사의 해체와 재구성』, 푸른역사, 2013을 참조할 것) 최근에는 문단 내 성폭력 고발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사건의 배후로 한국문학의 남성중심주의가 지목됨에 따라 여성을 비롯해 사회의 소수자를 외면하지 않는 문학사 쓰기와 대항 정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줄고, 『문학 정전의 해체와 재구성: 여성 글쓰기의 기원과 정체성을 찾아서』,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60-86쪽 참조.

16 리타 펠스키,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여이연, 2010, 98쪽.

는 여자’, ‘홈걸스’를 글 쓰는 여자의 세 가지 원형으로 제시한 것이다.¹⁷ 여성작가들은 ‘정상’을 자처하는 사회를 의심하며 자기 안의 불온성을 담은 여성 인물을 창조해 왔다고 보는 이러한 접근법은, 저자성을 남성으로 표상화해 온 통념에 맞서 여성작가의 창조성을 입증하고 남성적 성숙과 교양의 양식으로서 문학에 대한 정의를 침식할 수 있는 틈을 열어 준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 동의하며 강신재의 해방과 전후 문학을 ‘나쁜 여자’의 젠더 정치학으로 읽고자 했다.

2 “여류”로 환원되지 않는 낯설은 문장들

강신재(1924-2001)는 1949년 『문예』에 단편 「얼굴」, 「정순이」로 데뷔한 후 1950년대에 창작집 『희화』(1958)와 『여정』(1959)을 발표했다. 그러나 1950년대 중후반부터는 신문과 여성 잡지에 연재를 거쳐 많은 수의 장편소설을 발표하며 문단과 독서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로맨스에 대한 환상을 스릴러 형식으로 비틀고 있는 장편 『숲에는 그대 향기』(1969)는 한국문학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이기도 했다. 총 8권으로 발간한 『강신재 대표작전집』(삼익출판사, 1978), 문협 PEN 이사(1968~82년), 한국여류문학인회 회장(1982), 대한민국예술원 정회원(1983) 등을 지낸 이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강신재는 문단에서 소외되지 않았던 여성작가였다. 식민지기 문단의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처럼 강간당한 여자, 간통녀, 이혼녀로 ‘소문난 여성’의 멍에를 짊어졌던 선배 여성작가들과 달리 ‘정상가족’에 속해 “음전한” 가정주부로 살았다는 점에서 “규수작가”의 이상적 모델에 가까웠다. 강신재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였던 아버지와 보육교사 출신의 신여성이었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¹⁸ 경기여고와 이화여전으로 이어지

17 중산층 가정의 거실에 간혀 광기를 통해 규범적 여성성에 저항하는 ‘미친 여자’, 이성애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가장무도회를 통해 동성에 섹슈얼리티의 쾌락을 전유하는 ‘가면무도회하는 여자’, 혹은 여성 작가의 저항성을 은유하는 ‘홈걸스’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리타 펠스키, 앞의 책, 96-150쪽.

18 강신재는 “문명 개화기의 소위 신식 교육을 받은”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청교도적인 엄격함과 자유방임주의가 미묘하게 혼합된 교육 방침” 속에서 어린시절에는 순종을 철저히 단련받았지만 사춘기에는 상당한 자유를 선사받았고, 그것이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

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뿐 아니라 경성제대 법대를 졸업하고 자유당 소속의 제 4대 국회의원이자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남편을 두었던 상류계급 여성이기도 했다.¹⁹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강신재가 6·25 전쟁을 배경으로 발표한 여러 작품들은 ‘나쁜 여자’의 활약상이 부각된 것으로 전쟁이나 이념적 갈등이 후면으로 물러나 있지만 분명히 반공주의 소설의 계열에 속한다. 그러나 강신재는 자유당 국회의원을 남편으로 둔 소설가의 책임의식인 양 『오늘과 내일』(1966)에서 제 4·5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둔 이승만 정권의 타락상을 배경으로 4·19 혁명에 바쳐진 청춘 남녀의 희생을 곡진하게 그려내고 있어 우익 보수주의자의 입장에 섰다고 하기도 어렵다.

작가 자신의 회고에 의하면 강신재는 어린시절에 독서광이었지만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은 적은 없었다. 영문과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경기여고 진학 교사가 “귀축미영(鬼畜米英)과 전쟁을 하고 있는 현재 영문학을 하고 싶다는 사상은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허락해 주지 않아 이화여대 가사과에 진학했지만 염색, 자수, 재봉, 요리, 육아 등 전공 과목에 흥미를 느낄 수 없어 문과 교실 앞을 지나가다 흑판에 셰익스피어의 시 한 구절이 적혀 있는 것만 보아도 눈물을 쏟았을 정도로 문학을 좋아했을 뿐이다. 기혼 여성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이화여대의 학칙에 의거해 결혼과 함께 학업을 포기하고 전업 주부가 된 후에도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책을 좋아하다는 것을 안 대학 동창생의 권유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일 편을 탈고”해 손소희의 소개로 『문예』로 문단에 데뷔했다.²⁰ 강신재는 자신의 창작 동기로 19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해 살림에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재능도 없고 흥미도 느끼지 못해 책을 읽는 것만이 위안이었으며, 남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무엇인지 미안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소설 쓰기를 “사회의 한 구성

유했다고 회고했다. 강신재, 「내가 받은 가정교육」, 『그래도 가슴에 남는 한 마디 말』, 나무, 1986, 232-234쪽 참조.

19 강신재의 남편 서임수(1922-2016)는 대구 출신으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광복 후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한국전쟁 후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후에는 경향신문 부사장, 국민대학교 총장 등 사회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20 강신재, 「문학, 그 만남의 길」, 『시간 속에 쌓는 꿈』, 혜화당, 1993, 87쪽 참조.

원으로서 무위도식의 배(輩)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가혹한 뉘우침”, “자기 자신에 대한 체면”이라고 서술한 대목은 글쓰기가 주부나 어머니 같은 제도적 성 역할로 충족될 수 없었던 개인성 실현의 욕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²¹ 그러나 강신재는 자신이 “글을 쓰는 인간이면서 식구들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가 원고 마감 만큼이나 중대사로 여겨지는 부류”²²로 예술보다 생활의 질서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강신재는 안존한 주부 작가라는 신분과 작품 세계가 섬세하고 세련되었다는 점에서 “여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여겨져 상찬되기도 했지만 문학성 시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²³ 박경리 소설에 대한 ‘사소설’ 시비(是非)나 한말숙의 「신화의 단애」에 대한 실존주의 논쟁처럼 신작 「절벽」은 문학적 기본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철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자 강신재는 1959년 『동아일보』에 「평론가의 예술적 감각—백철 씨의 평을 박(駁)한다」는 글을 2회에 걸쳐 실으며 자기 작품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강신재는 등단 10년차의 작가로서 평단의 원로를 대상으로 “나는 (백)씨의 두뇌 구조나 센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뿐”이라는 거친 표현을 주저하지 않을 만큼 작가로서 강한 자의식을 드러냈다. 강신재와 백철의 논쟁에 주목한 연남경이 이미 밝힌 바 있듯이 평단에서 근대화의 주체를 묻는 논의가 벌어지며 문단의 헤게모니가 이동하는 1950년대 후반의 문단 상황은 “여성들에게는 닫힌 오이디푸스 계보”²⁴에 불과한 한편으로, 여성작가는 비평가가 자신의 문학적 권위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문단 내 여성작가의 소외된 위치와 굴욕적 처지에 대한 저항인 듯 강신재는 “여

21 강신재, 「나의 작가 수업」, 『사랑과 아픔과 진실』, 육민사, 1966, 286쪽 참조.

22 강신재, 「한무숙 선생님을 추모함」, 『시간 속에 쌓는 꿈』, 혜화당, 1993, 156쪽.

23 가령 전후 문단을 대표하는 비평가였던 조연현은 강신재를 “우리나라 여류 중 가장 문학적 역량이 풍부하고 세련된 여류 중의 한 사람”이라고 고평했지만 고은은 강신재를 타이투스 커트에 갇힌 여성 작가, 즉 주부로서의 기능이 결핍되었을 뿐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이고도 다의적인 문제를 놓치고 단편적으로 보고 그것만 심리적 수법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여성작가라고 비판했다. 조연현, 「강신재 단상」, 『현대문학』 제6권 2호, 1960, 278쪽; 고은, 「실내작가론—강신재」, 『월간문학』 제2권 11호, 월간문학사, 1969, 151쪽 참조.

24 연남경, 「현대비평의 수립, 혹은 통설의 탄생—1959년 백철과 강신재의 논쟁에 주목하며—」, 『한국문화연구』 제36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9, 72쪽 참조.

류작가”라는 명명에 극렬한 반감을 토로했다. 「한국여류작가의 위치」는 “편집부에서 이런 제목을 보내오셨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구시대적인 음향이 서로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해 “여류 작가”가 낙인임을 비판한 산문이다. 이 글은 한 부인이 남편의 직업을 물어 대학 교수라고 답하자 “그래 가끔 신재 이름이 신문 잡지에 실리곤 하는군, 오오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에피소드를 통해 “여류”라는 명명이 여성작가의 저자성에 대한 부정의 의미로 통용된다고 비판하며 “동시대의 사람, 동자질(同資質)의 사람 사이에 물론 같은 경향이 발견될 수 있지만 여성으로서 분류되는 일군의 작가에게 공통된 특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하고도 무의미한 일”로 여성작가는 어디까지나 개인임을 강조하고 있다.²⁵

강신재는 자신의 작품 속 인물들을 회고하는 글인 「나와 그녀들」에서 남성평론가들이 “여류작가”에 대한 정형화된 시선으로 인해 작품을 ‘오독’ 한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창작 의도를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남성평론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여성의 어떤 운명적인 드라마에 작품의 소재(素材)들을 갖고 있고 그 비극이라든가 절망상을 흔히 다루고 있다”고 해석하지만 자신은 여성의 운명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인간의 생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듯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포착”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고 한 것이다. “어떤 일정한 상황 하에 놓인 인간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며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²⁶다는 서술은 강신재가 선/악같은 이분법적 ‘도덕’ 규범보다 사회라는 생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대응 전략을 서사화하는데 관심이 큰 작가임을 암시한다. 강신재는 1950년대 여성혐오의 젠더 정치 속에서 자신의 소설 공간을

25 이 글은 등단 후 발간한 첫 에세이집에 실린 것으로 언제 어떤 매체에 실렸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강신재는 이 글에서 여성작가의 독창성을 부정하는 문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지 못하고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 글쓰기의 독자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생활조건이 다르고 또 봉건성이 남아 있는 우리 한국의 특수성에 비추어 어떤 특이점 내지는 제약같은 것”이 있다며 여성 작가는 이러한 제약들과 맞서야 함을 강조했다. 강신재, 「한국여류작가의 위치」, 『사랑과 아픔과 진실』, 육민사, 1966, 282-284쪽 참조.

26 강신재, 「나와 그녀들」, 『거리에서 내 마음에서』, 평민사, 1976, 177-178쪽 참조.

가부장제의 도덕을 위해 순사(殉死)하는 청순가련형 여성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 생존과 미식과 섹슈얼리티 그리고 사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사악한 여자들의 유희 공간으로 내어 준 독특한 스타일리스트였다. ‘나쁜 여자’는 거대한 수난 혹은 절대적 힘 앞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운명에 체념하는 존재가 아니라 강한 생존욕과 권력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여성성에 대한 규범적 이데올로기와 정의를 침식하는 불온한 여성 인물이었던 것이다. 여성의 순치되지 않은 욕망을 통해 ‘여성성’에 대한 규범적인 정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강신재는 “여류작가” “규수작가”의 이상을 배반하는 작가였던 것이다.

어린 시절 함경북도 청진에서 보낸 강신재는 “황량하고 강렬한 자연과 사람들의 심성은 내 감성에 깊이 작용하여 나는 언제까지나 그때의 그 고장에의 애정을 갖고 있”²⁷다고 고백하고 이복을 배경으로 한 『파도』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신재 소설의 언캐니한 여성 캐릭터들은 이복의 강렬한 풍토적 기질에서 기인하는 야생적 여성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시대적 의미를 갖는다. 강신재는 진화심리학²⁸을 선취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과 유혹의 전략을 통해 친구의 남편을 빼앗는가 하면 아들의 친구마저 피어내는 색정증적 여성들의 이야기를 즐겨 다루었다. 그러나 나쁜 여자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같은 성 내 경쟁(intra-sexual competition)과 다른 성에 대한 유혹과 질투 같은 성 전략(sexual selection)은 성공적인 짝짓기, 즉 종족 번식을 위한 투쟁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강신재 소설은 진화론과 결정적으로 갈라선다. 출산과 결부되지 않는 섹스를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식마저도 버리는 사악한 모성이라는 점에서 짝짓기 행동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번식상의 목표와 무관한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유희적인 태도로 사랑에 빠진 순진한 남자들을 희생시키는 여성 인물들을 ‘나쁜 여자’라고 부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1950년대는 근대적

27 강신재, 「고향」, 『시간 속에 쌓는 꿈』, 혜화당, 1993, 144쪽 참조.

28 진화심리학(進化心理學, 영어: Evolutionary psychology)은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신생학문으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유기체)의 마음(심리)을 생태학적이고 진화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진화심리학은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는 모두 적용할 수 있지만, 주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데, 특히 수백만 년에 걸친 인간 진화의 역사를 파헤치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인간의 성적 욕망을 낱알이 규명하고자 했다.

각본으로 ‘낭만적 사랑’이 여성적 사랑으로 칭송되는가 하면 ‘일부일처제’ 제도가 구축됨으로써 여성이 봉건적 가문 공동체에서 벗어나 한 남자가 다스리는 새로운 가부장제로 이동한 때라는 점에서 ‘나쁜 여자’는 여성에 대한 규범적 상상력을 비틀고 가부장제로부터 탈주하기 위한 여성작가의 불온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3 부인 내심의 글쓰기와 불안의 상상력

이 장에서는 등단 후 초기작들을 중심으로 ‘나쁜 여자’가 등장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살펴 봄으로써 강신재 문학의 현실성과 불온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간 강신재의 소설은 사회와 무관한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이야기이거나, 관련성을 갖는다고 해도 피상적인 차원에 머무는 무중력 서사인 양 취급되어 왔다. 가령, 강신재는 여러 편의 단편과 장편에서 한국전쟁기를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았지만 “전쟁이 사건의 진행이나 인물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배경에 그치”며, 이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본성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작가가 여성이기에 전쟁과는 원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²⁹ 증거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여성작가의 관심은 사적인 데 머물러 있어 여성의 글쓰기는 민족이나 공동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메시지처럼 읽힌다. 그러나 해방과 한국전쟁을 남자들이 주도하는 이념적 쟁투나 전방에서 벌어지는 총격전으로 인식할 때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전투’를 치러 왔다는 사실은 간과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작가의 역사 재현은 남성으로 대표되는 민족 서사와 그 양상이 다르고, 이로 인해 민족주의적 가치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의 여성문학을 새롭게 읽기 위해서는 여성작가들을 구중심처(九重深處)의 “규수”인 양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작가를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자유연애와 남녀평등 같은 근대적 ‘사상’에 눈뜨고 8·15 해방의 감격 속에서

29 양윤모, 「전쟁과 사랑을 통한 현실인식: 강신재론」,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커뮤니케이션스, 1994, 361쪽.

여성해방을 위한 정치적 실험에 나서지만 한국전쟁과 남성이 주도하는 전후 재건의 정치 속에서 억눌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존재로 볼 필요가 있다. 초기 단편들을 집중해 보면 강신재가 식민지와 6·25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서사화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949년에 발표된 「얼굴」은 작가의 등단작으로 주인공 ‘경옥여사’와 그녀의 “애인이자 동지” 혹은 “지도자”로 지칭된 실업가 K의 약 이십여 년에 이르는 시간을 통해 일제 식민지와 해방으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사를 서사화하고 있다. 특히 ‘남편의 배신’이라는 모티프는 일부일처제를 실현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해방기 여성계의 핵심적인 이슈들과 연동함으로써 서사의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화자인 ‘나’는 이십 여년 전에 경옥에게 구애의 편지를 쓰지만 차가운 거절의 답장을 받는다. 경옥은 ‘나’에게 K씨와 결혼을 할 것이며, “저라는 여성 속에서 모든 미와 덕을 발견하고 저를 통해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³⁰하는 남자를 위해 “학(鶴)과 같이 깨끗하고 백합같이 향기로워야지요”(23쪽)라는 고백인지 다짐인지 모를 답장을 보내온다. 그녀가 편지에 인용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자”(22쪽)는 K의 말은 결혼이 가문의 번성을 위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이상적 사회 건설을 향한 기초로서 주목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남편의 장례식에 그의 숨겨둔 애인이 등장함으로써 사랑은 한낱 기만이자 어리석은 환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 남편이 죽으면 비소를 삼키고 순사하겠다고 결심했던 경옥은 결국 아름다운 사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적의의 눈초리를 번득이는 백발 마녀로 남는다. 검정테 안경 너머로 험악한 표정을 풍기는 그로테스크한 여자가 되어 커다란 집의 문을 닫아 건 채 흰 고양이 한 마리와 칩거하는 것이다. 다소 희화화되어 표현되었지만 경옥의 이야기는 순진한 여자의 어리석음이나 개인적 불운의 문제로 취급하기 어렵다.

이 소설은 ‘나’가 ‘경옥’의 삶을 관찰하는 형식을 통해 사랑을 구원의 종교처럼 여겼던 ‘경옥 여사’가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입는 과정을 다소 희비극적으로 다룸으로써 ‘낭만적 사랑’과 근대적 가정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해방기

30 강신재, 「얼굴」, 『강신재 소설 전집』(김은하 엮음), 현대문학, 2013, 23쪽. 이하 작품 인용 시 본문에 쪽수만 표기하겠다.

에서는 “해방의 노라가 되자”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들의 정치 조직이 등장해 공창제 폐지, 가족법 개정, 여성 참정권 획득 등 여성해방을 위한 일련의 정치적 투쟁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축첩제, 공사창제를 폐지하고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근대적 가정을 건설함으로써 여성의 가정 내 지위를 높이기 위해 여성계는 분투했다.³¹ 해방이 되자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 자유연애주의자를 자처하며 ‘정조’론을 비판했던 식민지기의 신여성들과 비동시적으로 조우했다.³² 그러나 윗세대처럼 소문난 여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금욕주의적 존재로 만드는 한편으로 일부일처제 가정 속에서 확실한 시민적 위치를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성들은 사회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낭만적 사랑’과 ‘근대적 가정’을 인간적 권리를 실현할 지평으로 받아들이며 가부장제와 타협한 것이다. 그렇지만 부인 내실은 ‘사랑’이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라는 의혹 속에서 여성이 광기를 일으키는 불안정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강신재는 「병아리」, 「눈이 나린 날」, 「안개」 등 해방기에 발표한 여러 작품에서 재능있는 예술가였지만 가사노동과 양육으로 서서히 꿈을 잃어가는 기혼 여성들을 통해 가정을 여성의 소외 공간으로 그려냈다.³³ 여성 예술가의 좌절을

31 여성계는 첩의 문제를 해방 후 문명세계의 일원으로 규정하여야 할 혼인의 형태의 문제이자 기존의 가족의 문제를 재구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축첩을 둘러싼 법제화는 헌법상으로는 ‘혼인의 순결’ 조항을 삽입하는 한편, 「형법」에서는 간통쌍벌주의로 분화되었고 신민법 제정과정에서 혼외자의 출생신고의 문제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방이후 축첩의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운동과 담론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진정으로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으며 이후의 더 지난한 가족법개정운동과 더불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문제제기가 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마정윤,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여성관련 법제화와 축첩제 폐지운동」, 『이화젠더법학』 제8권 3호, 2016, 160쪽 참조.

32 근대의 도래와 함께 개인의 탄생이 이루어지면서 봉건적 가문 중심의 혼인제도에서 벗어나 함께 살 대상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추구되었다. 중세의 가문중심적인 혼인제도 속에서 여성은 아버지들에 의해 교환되는 재산 목록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봉건/근대의 교차로에 있었던 식민지기의 ‘신여성’들은 자유 연애를 남녀는 모두 평등하기에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음을 뜻하는 근대의 선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보수적인 사회는 자유연애를 허화부박한 신여성의 일탈이나 타락의 기호로 취급했고 이들은 사회에서 추방되었다.

33 1949년 7월부터 1950년 6월까지 발표한 총 8편의 작품 중 「얼굴」(『문예』, 1949.9), 「눈

여성에게 주어진 숙명이나 성숙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라 결혼 제도의 불평등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초점화함으로써 남녀평등에 대해 예리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중 「안개」는 부인 내실의 행복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는 해방기 여성문학의 성과작이다. 여주인공 성혜는 “오랜 비참한 혼자 씨름에서의 첫 번 승리”로서 자신의 소설이 실린 잡지를 원고료와 함께 받아 들지만 드러내놓고 기뻐하지 못한다. 그녀의 남편인 형식은 성혜가 여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취업을 하기보다 몽친 실을 풀어내는 “구물푸리”의 ‘내직’, 즉 부업을 권할 만큼 아내의 사회 생활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말로는 남녀평등을 외치지만 “여편 네가 밤낮 바깥으로 나돌아 댕기다니 생각만 해도 불쾌하다. 불결해!”(42쪽)라고 할만큼 그는 위선적이면서 가부장적인 의식의 소유자이다. 더욱이 시인인 그는 성혜의 등단을 인정 한 후에는 그녀의 재능을 불신하며 작품 활동을 좌지우지하고자 한다. 아내가 자신을 능가함으로써 남성과 가장으로서의 헤게모니를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성혜는 끝이 모즈러진 호미와 꼬챙이를 하나 찾아 들고서 뒤꼍으로 나갔다. 흙을 긁어 올리고 발로 밟고—몸은 그대로 움직이면서도 성혜의 마음은 어딘가 먼 데로 날고 있었다. 막연한 생각 속을 더듬으면서. 재미나게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은 성혜의 쓸쓸한 버릇이었다. 어째서인지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에게는 무엇을 생각하거나 쓰거나 하는 외의 대개의 일은 흥미에서 보다도 필요에서 하여졌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하여 주위의 모든 것을 깨끗하고 쓸모 있게 간직하고 될 수 있으면 개량하고 윤택히 하고—이런 곳에 삶의 즐거움이 숨

이 나린 날」(『문예』, 1950.1), 「병아리」(『부인경향』, 1950.6), 「백조의 호수」(『여학생』, 1950.3), 「안개」(『문예』, 1950.6)는 모두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중 「병아리」와 「안개」는 각각 그림, 문학을 함께 전공하는 부부의 갈등을 문제 삼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성의 불평등 문제를 초점화한다. 위 소설 속에서 화가인 아내는 아틀리에에서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린 뒤 집에 와서 쉬는 남편과 달리 양육 노동에 짓눌려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병아리」), 성악가인 여자는 전도가 양양한 청년인 남편과 달리 시가의 추운 방에 앉아 양말을 기우면서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를 새삼 깨닫는다.(「눈이 나린 날」)

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거기에 비하면 추상적인 감정의 조각구름 따위에는 결국 아무 의의도 없을는지 모른다. 성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본다.(48쪽)

위의 인용문은 성혜가 가부장제가 규범화하는 여성과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개인 사이에서 분열을 겪어 왔음을 암시한다. 그녀는 “막연한 생각”이나 “추상적인 감정의 조각구름 따위 속을 더듬”는 것으로 표현된 글쓰기 욕망을 가졌으면서도 “주위의 모든 것을 깨끗하고 쓸모 있게 간직하고 될 수 있으면 개량하고 선택히” 한다는 이유로 가사 노동을 더 가치있는 것처럼 받아들였다. “형식이 원하는 그러한 아내의 타입 속에도 어쩌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중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을지도 알 수 없다”(42쪽)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며 “체념에 가까운 반성”(42쪽)으로 남편에 대한 순응을 체질화해 온 것이다. “남편을 반역한 아내”(42쪽)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소설을 쓰고 싶다는 바람과 이를 억누르려는 남편과 충돌하면서 성혜는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지 못한다. 성혜는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며 “너무나 우열愚劣한 피어로”(61쪽)에 불과한 남편의 실체와 마주하고 “땅을 기던 짙은 안개가 전선주를 휘감으며 연기같이 뭉게뭉게 올라가고 있”(61쪽)는 것 같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성혜가 자신의 내부에서 감지한 “초연硝煙과도 같이” 타오르는 “노오란 그 빛”은 성혜의 글쓰기가 ‘집 안의 천사’를 해방시키는 광기의 에너지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해 여성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짐으로써 독립과 자유를 향한 여성의 꿈은 좌절되고 만다. 남자들이 부재한 공간에서 아이와 함께 여성들이 겪은 전쟁 이야기는 재난으로 확인된 여성들의 취약한 위치를 문제적으로 드러냈다. 전쟁은 생존의 공포를 극대화하거나 가부장제의 ‘정상성’ 범주로부터 미끄러지는 탈락 혹은 추락으로 경험된다. 한국전쟁기를 배경으로 한 「그 모녀」(『문예』, 1953.1)에서 인하는 남편이 납치되어 무일푼이 되었으면서도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던 탓에 일말의 자유와 해방감조차 느낀다. 그녀는 친정으로 되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 인하는 첩이라도 되기 위해 결혼 전 그녀에게 청혼했던 남자를 찾아가지만 문전박대를 당하자 유일한 재산인 판잣집을 팔아 빵과 음료를 파는 가게를 열고 손님을 끌기 위해

공들여 화장을 한다. 가족 전부가 길바닥에 나 앉을지도 모른다는 생생한 공포로 인해 인하는 싱싱한 활기마저 띈다. 그러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가게에는 손님이 들지 않고 폭격은 계속되어 인하는 결국 모든 것을 내버린 채 피난을 떠나게 된다. 노예처럼 자신을 부리던 남편이 사라졌지만 그녀는 해방의 자유를 느끼기는 커녕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전쟁으로 여성의 취약한 위치성을 실감한 여성들은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할당한 ‘가정 내실의 부인’이라는 위치에 집착해 애정을 향한 망상에 가까운 열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부인 내실을 휩싸고 도는 불안한 의식은 여성들에게 구원의 종교인 양 기능해 온 근대적 제도이자 이데올로기로서 ‘낭만적 사랑’에 대한 의혹을 드러낸다. 「어떤 해체(解體)」(『현대문학』, 1956.1)의 여 주인공인 시정은 피난을 가던 중 헤어진 남편 현구를 찾기 위해 약도 한 장에 의지해 어린 아이들과 함께 길을 나선다. 남편을 찾아나선 시정은 “지글지글 타는 광란한 듯한 태양”이 “한 개의 물체가 아니라 몇 개로나 분열됐다 다시 합쳤다 하면서 온 하늘은 빙빙 도는 괴상한 군성(群星)처럼 의식되”고, “동공(瞳孔)에서는 무지개색 별발이 쏟아져 산란했다”³⁴는 서술이 말해주듯이 광기의 징후조차 띈다. 현구가 어떤 소녀와 거리를 걸었다는 “불유쾌한 소문”(159쪽)을 접하고 남편에 대한 의혹과 미지의 여자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시정은 “패배감 같은, 쓰디쓴 감정”을 느끼면서도 진실을 알기 위해 현구를 찾아 나선 것이다. 현구의 집을 찾은 시정은 온갖 의혹에 시달리며 그를 기다리고 결국 그가 이미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현구의 전사 통지서를 움켜 쥔 채 “정신을 이루고 있는 매듭이 하나하나 완전히 풀려서” “분해되어가고 있는 것”(170쪽) 같은 충격 속에서 시정은 “사랑도 슬픔도 의혹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했었다는 아연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남편의 죽음을 통해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독하고 괴이한 망상의 노예를 면하지 못하는 일임을 감지한 것이다.

「팬터마임」(『자유문학』, 1958.3)은 식민지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에 이르는 근현대사의 시간을 배경으로 미친 여자의 이미지를 통해 여성의 불안을 그

34 강신재, 「어떤 해체」, 앞의 책, 157쪽.

리고 있다. 움니버스 영화처럼 이 소설은 몇 개의 삽화를 통해 여자의 인생에 대한 진실을 붙잡고자 한다. 여주인공인 옥리는 북경에서 오는 열차를 타고 순규가 있는 T시를 향한다. “면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247쪽)처럼 그녀는 성숙한 여자로서 결혼이라는 인생의 관문 앞에서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사건, 모든 가능성, 모든 감격이, 지금은 다만 암시로서만 나타나 있”(247쪽)다는 서술은 앞날에 대한 모종의 불안을 암시한다. 옥리가 기차에서 본 “만주의 어떤 정신병실에서 나온 것”처럼 분홍 옷을 입은 여자는 여성에게 결혼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과 슬픔 속에서 서서히 미쳐가는 시련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옥리는 미친 여자의 광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연민을 느낀다. 두 번째 삽화는 오랜 시간이 흘러 옥리가 학병에 나간 남편 순규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야기이다. 아이와 함께 남은 옥리는 남편이 전사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녀의 불안은 나룻배 위에서 붉고 푸른 옷을 입고 미친 사람처럼 튀어 오르는 젊은 여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으로 드러난다. 옥리는 자신의 불안을 투사해 미지의 여자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있어야 할 그 사람”을(255쪽) 잃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여기까지 본다면 아마도 강신재는 여성의 종교는 사랑이라고 여긴 여류작가였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옥리가 “순규를 원하여서 신에게 빌고 기원하기를 그만두지 않”(254쪽)는 것은 그녀가 부모 형제와도 인연을 끊고 세상과 철저히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고립’은 비단 옥리의 특수한 현실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무기력한 처지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 하듯이 세 번째 삽화 속에서 중년 부인이 된 옥리는 순규와 다섯 아이를 낳고 상류층의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순규가 자신을 배반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의 호주머니에서 여성용 시계를 발견하고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못한다. 시계는 K장관 부인의 것으로 순규가 고장난 시계를 고쳐주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지지만 옥리의 불안은 끝내 해소되지 않는다. 옥리는 자신이 “약간 저열함을 면치 못하”는 망상에 붙들렸다고 부끄러워하면서도 “그것은 별수 없는 일”(259쪽)이라고 자조한다. “꽃은 떨어지는 법이고 향기는 날아가기 마련이니까”(259쪽)라며 얼굴에 분칠을 하는 옥리의 모습은 그녀가 언제나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화장은 결코 부패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상품과도 다를 바 없는 취약한 위치를 암시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불안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강신재가 나쁜 여자들에게 매혹되는 이유이다.

4 나쁜 여자라는 전략의 양가성

1950년대에는 해방 공간을 뒤흔들었던 이념 갈등이 휴전과 분단으로 억눌려지면서 ‘자유주의’의 정치 철학을 근간으로 근대화 기획에 박차가 가해졌다. 그러나 8·15 해방을 민족의 역량으로 이루지 못하고 휴전과 함께 미국의 반(半)식민지 상태에 놓이자 되자 전통에 뿌리박은 ‘탈(脫)식민 근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탈식민 민족 국가 건설의 주체가 남성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전후는 남성성 회복의 드라마였다. “여성해방이 없다면 민족의 완전한 해방도 없다”는 해방기의 슬로건은 자취를 감추고, 전통의 복원, 민족적 주체성 회복이라는 명분 하에 남자들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돌아온 남자들은 사회의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풍기문란(風紀紊亂)’의 젠더 정치를 가동시켜 이른바 ‘되바라진’ 여성들을 처벌하기 시작했다. 전후 ‘아프레 걸’ 담론이 보여주듯이 가부장제가 할당한 여성의 ‘제자리’에서 벗어난 여성들은 추문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이면서도 법적인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남한 정부는 민족적 자존심을 구기고 일본 제국이 만든 식민지 형법을 차용하면서까지 ‘혼인빙자간음죄’를 제정해 정조를 여성의 생명으로 적시하고, 여성의 방종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³⁵

35 ‘형법요강해설’은 ‘혼인빙자간음죄’를 제정한 이유를 남성의 성적 약탈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전통적 미풍에 비추어 부녀의 정조는 재산권은 물론이고 때로는 생명권보다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약자의 지위에 있는 부녀의 정조를 농락하는 소행에 대하여는 그(것이) 강간이 아닌 이상 아무런 처벌규칙도 없는 것이 우리 현행 형법 법규”라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정조를 여성의 생명으로 적시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와 순결한 여자로 이분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성을 드러냈다. 또한 법의 보호 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국가는 여성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감시하고 처벌할 것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박정미, 앞의 글, 261-295쪽 참조.

따라서 여성들은 사회적 관습이 배치해 준 제자리에서 ‘규수’의 가면을 쓰고 이상적인 여자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남성의 사유화된 성(城)에서 가정 주부들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기생하며 굴욕적인 감정 노동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넉넉한 중산층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을 감옥으로, 자기 자신을 수인(囚人)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전후의 상업적 독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끈 것은, 성녀/악녀의 대결과 갈등을 보여주는 대중서사들이었다. 여성 독자들은 여성 작가와의 은밀한 공모를 통해 표층 서사의 보수적 교훈주의와 달리 가부장제의 금기를 넘어서는 악녀에게 매혹되었다. 강신제는 여러 작품에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친구의 남편을 꺾어내고(「제단」), 제 자식마저 위협에 내모는(「표선생 수난기」) ‘악녀’들을 그려냄으로써 대중소설가로서의 면모를 이미 단편에서부터 보여주었다. 그녀는 남성중심적인 평단을 의식한듯이 악녀를 도착적 욕망을 가졌다는 점에서 정상성을 벗어난 괴물로 은유하고 여성적 조화의 미를 잃어버린 부정적 인물로 그렸다. 그러나 “코케이브”하고 “에브노멀”하다는 외래어로 서술된 악녀들은 자기 검열없이 섹슈얼한 욕망을 표출하고 사치품을 소비하며 한껏 아름답게 치장한 육체를 뽐내면서 착한 주인공보다 더욱 강렬하게 여성 독자를 사로잡았다.³⁶ 가부장적 공간을 침범하고 교란하는 이질적인 여성 주체들로서 “양공주”, 첩, 유한마담 등 ‘나쁜 여자’들은 싱싱한 활기를 뽐내며 규범화된 여성에게 금지되어 있는 쾌락을 향유하기 때문에 은밀한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³⁷

36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할 것. 줄고, 「유미주의자의 글쓰기와 여성 하위주체들의 욕망—강신제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187-219쪽.

37 가부장제의 억압에 대한 의식적 각성의 유무에 따라 여성을 참된 신여성으로 거절된 신여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성녀/악녀로 분할해서 통치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으로,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여성의 젠더 정치학을 무시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쁜 여자’는 “규수” 이미지에 갇힌 여성작가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1950년대 여성문학 연구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임옥희는 1920년대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한 ‘신여성’의 삶을 추적하면서 ‘신여성’을 “남성 지배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여성들”로 정의하고 “신여성 안에 (있는) 다양하고 다채로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미군 군대가 주둔하며 펼쳐진 새로운 현실을 그린 작품들은 “양공주”를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불온한 신여성으로 그리는 파격적인 상상력을 보여준다. 「해결책」(『여성계』, 1956.9)에서 여주인공 덕순은 남편 관오가 기생 출신인 첩에 빠져 자신을 외면하자 “요즘 세상에 어처구니없이 기막힌 자리를 자기는 지키고 있는 것”(185쪽) 아닌가 회의한다. 그러나 “커다란 배를 부둥켜안고, 말 안(‘못’의 오기로 보임: 필자)하는 금수처럼 우울한 눈초리를 지으면서 그 운명에는 맹종할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186쪽)는 서술처럼 덕순은 셋째 출산을 앞둔 만삭의 임부로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답답하기만 한 덕순은 자기 집 이층에 세든 양공주 김미라의 “화장품 상자같이 깨끗한 방”(189쪽)과 “공주다움게 어여쁘고 사치하고 그리고 편안”(191쪽)해 보이는 삶에 매혹된다. 김미라가 “매춘부다움게 무언지 정상치 않고 세우차 보”(191쪽)인다고 여기면서도 “언제나 싱싱한 낮빛으로 즐거운 듯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끌리는 것이다. 김미라가 ‘정상가족’의 질서를 벗어나 가부장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꾸리고 있다고 여기며 선망하는 것이다. 김미라는 첩을 ‘투기(妬忌)’했다는 이유로 덕순을 때리는 관오를 신사적이지 못하다고 꾸짖고 뺨을 때릴 만큼 가부장제 저항하는 인물로 재현된다. 성매매는 정조의 타락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비굴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가부장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성이 무기력한 처지를 벗어날 방법, 즉 ‘해결책’으로 초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를 빈곤과 가부장제라는 이중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성의 선택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나쁜 여자’의 서사는 불온성과 현실성을 획득한다.

“양공주”에 대한 재현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의거해 여성을 본처/첩, 규수/창녀로 분할하고 성 규범을 벗어난 여성들을 처벌해 온 남성중심적인 서사의 문법에 비추어 볼 때 여성 글쓰기의 젠더 정치성을 풍부하게 드러낸다. 특히 “양

운 여성 ‘들’에 주목하자고 제안한다. 기존의 신여성 개념을 폭파하는 복수(複數)의 여성들, 가령 레즈비언, 트랜스섹슈얼, 붉은 혁명의 여전사, 히스테리아, 여성물신주의자, 첩 등 말 그대로 다형적인 여성들을 통해 가부장적 민족주의나 진보적 해방 이념이 구축해 온 “‘진정한’ 원본 신여성”이라는 관념이나 환상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임옥희, 『메트로폴리스의 불온한 신여성들: 1920년대 런던,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를 배경으로』, 여이연, 2020, 7-20쪽 참조.

공주”를 사회의 오염이나 ‘민족’의 외상(外傷, trauma)으로 재현하지 않고 씩씩한 경제 주체로 그려낸다는 점은 동시기 남성작가의 “양공주” 재현과 변별되는 측면이다. 「관용」(『신사조』, 1951.7)에서 “양공주” ‘팻지이’는 새빨간 윷도리와 새파란 스커트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하이힐을 신은 채 흐느적흐느적 도시를 걷는다. 며칠 간 굶었음 만큼 절박한 처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걸으며 미군을 유혹하는 것이다. 계절이 바뀌면 팻지이는 미군부대의 막사가 늘어선 기지촌을 흑인의 팔을 끼고 걸으며 미소조차 머금는다. 그녀는 “별죽별죽 웃으면서” 그녀를 바라보는 “작난꾼”들을 “진기한 동물이라도 대하듯이 눈을 가느스름히”³⁸ 훑어 보는 것으로 조롱을 맞받아친다. 민족이 강요하는 수치심보다 흑인 애인이 한 두 달 정도는 자신을 굶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관용’이라는 소설의 제목은 작가가 “양공주”를 혐오나 동정의 대상으로 타자화하지 않고 어려운 시절을 씩씩하게 버텨 낸 생존 주체로 그리고자 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유혹적인 걸음새의 ‘팻지이’는 이전까지 경험한 적이 없었던 성애적 감각 속에서 물신화된 자신의 육체에 도취된 듯 보인다는 점에서 생존 주체로만 환원하기 어려운 도발적인 여성 캐릭터이다.³⁹

「해방촌가는 길」(『문학예술』, 1957.8)은 양공주에 대한 민족주의 서사의 도식을 거부하고 반격마저 가하고 있는 작품이다. 미군부대에 다니는 오피스 걸인 기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장녀로 너무도 처참한 가난을 두고 볼 수 없어 “양공주”로 나선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 ‘장씨’는 정숙함과 거리가 먼 딸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도 딸이 매춘의 대가로 들고 온 카메라나 녹음기 같은 고가의 미제 물품에 만족해 하며 밀지지 않고 팔 방법을 찾는다. 기에 어머니의 이중성은 전후 사회가 “양공주”의 에로스 경제에 의존해서 먹고 살았으면서도 이들을 정상 사회를 위협하는 무질서나 타락으로 낙인찍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알레고리화한다. “양공주”는 남한이 미국의 “수혜 경제 체제”에 의존해 있음을 고통스럽게 일깨

38 강신재, 『회화』, 계몽사, 1958, 128쪽.

39 강신재의 소설을 “1950년대 섹슈얼리티의 사회지리학”으로 명명하며,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와 전쟁을 거치면서 새롭게 등장한 실존적 여성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간극과 심연에 주목한 논의로 다음을 참고할 것. 심진경, 「전쟁과 여성 섹슈얼리티」, 『현대소설연구』 제 3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74쪽.

움으로써 체면과 위신을 세워야 한다는 각성을 유도한다. “점령지의 수혜 경제는 성적 경제라는 방식으로 작동했다”⁴⁰는 점에서 양공주는 민족의 상처를 환기시키는 곱끄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전후 남성작가들은 양공주에게 희생자의 이미지를 부여해 탈식민 민족주의적 주체로서 자기정체성을 획득하거나 무질서, 타락, 사치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고 이들을 민족의 경계 바깥으로 추방함으로써 순결한 민족의 환상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민족주의 서사 전략에 반해 기애에게 말하는 자의 위치를 부여해 민족주의적 상징이나 표상으로 알레고리화하지 않는다면, 빈곤, 질시, 낙태 등 물리적, 사회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 양공주의 현실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의의는 크다.

“당신은 언제든지 명령이 내리면 본국으로 후딱 날아가 버릴 테지만 나 중 일을 두려워할 건 조금도 없어요.”

하얀 데이지가 흩어져 핀 정원으로 내려서면서 기애는 뚱보 미국인 장교 구락부의 하리이에게 웃어 보이는 것이었다.

“보아가 날 지켜줄 테니까요. 도적으로부터 못난 녀석들로부터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들 눈과 입으로부터…….”

뚱뚱보 하리이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짐짓 성실한 낯빛을 지으면서 오오 자기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기애는 손가락을 하나 세우고서 애당초 곧이듣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그의 눈 속은 조금도 그늘져 있지 않았다. 앞가슴만을 조금 가린 짙·드레스(일광욕할 때 입는 드레스: 필자) 두 다리를 쪽 펴고 보릿짚 샌들로 힘차게 땅을 딛고 섰는 그는, 투명한 남빛 유리 같은 여름 하늘 속에 자기의 투지(鬪志)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기애는 튼튼해지고 어여빠져 있었다.(242-243쪽)

위의 인용문에서 본국 귀환을 앞둔 미군 장교 하리이와 기애의 대화는 기애가 민

40 캐서린 H.S.문, 「한미 관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의 몸과 젠더화된 국가」, 일레인 H. 김·최정무, 박은미 역,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188쪽 참조.

족의 혐오어린 시선에 주눅들지 않을 뿐 아니라 ‘낭만적 사랑’ 같은 가치들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연애의 전문가임을 암시한다. 가난으로 몸을 판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워 미군 조오에게 사랑의 감정마저 품으려 애썼던 지난 날의 기애는 더 이상 없다. 합리적인 계산속과 냉철함으로 무장했다는 점에서 기애는 개인사업가와 같은 태도를 보여준다. 비록 성매매라는 자기 상품화의 방식을 통해서나마 그녀는 가부장제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생존을 꾸려간다는 의미에서 ‘독립’을 성취한 것이다. 그러나 주체적인 “양공주”라는 형상은 험뎨은 모성의 노동으로서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미지와 뒤섞여 있기도 하다. 작가는 기애의 성노동이 남동생 ‘옥이’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옥이가 똑바로 자라나줄 것만이 여기서는 필요한 일이었다.” “똑바로 자라나다오. 그것은 누나처럼, 근수처럼, 그리고 어머니처럼 되지 않는 일이다”(245쪽)는 간절한 기원은 기애에게 무능한 부모를 대신해 험뎨은 몸으로 어린 동생을 키워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누이의 이미지를 부여한다. 작가는 기애의 성노동에 가족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양공주”의 슬픔과 고통을 애도하고자 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지만 성노동을 가부장제의 익숙한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양공주”, 즉 식민 주체인 제국과 피식민지 민족주의 주체의 동맹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토대로서 식민지 하위계급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제기하는 복잡한 질문들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대 사회에서 강신재 문학의 젠더 정치성은 착함과 거리가 먼 사악한 여성들을 형상화함으로써 단일하고 진정한 여성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지닌 억압적인 성격에 도전했다는 점이다. 강신재의 글쓰기는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혹은 대안적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성에 대한 상식적인 정의들을 위협하기 위한 도전적 유희에 가깝다.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발견된 여성의 관능적 육체를 부인하고 가부장제를 복원하고자 했던 1950년대에서 여성들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여성성’을 수수께끼로 만드는 것이 글쓰기의 전략이었던 것이다.⁴¹ 인간을 성적 육체와 정념을 가진 존재로 봄으로써 강신

41 강신재는 주인공 외에 “갓가지 모양으로 변신한 이브들”(악녀형 캐릭터를 뜻함-필자)을 소설 속에서 그린 이유를 “또 한 명의 여자에게, 어떤 불상에서처럼 몇 개나의 얼굴이나 수많은 팔다리를 수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신재, 「이별·구원·그 이력」, 『월간 문학』 제607호, 월간문학사, 1971, 258쪽.

재는 제도나 관습의 족쇄로 순치시킬 수 없는 인간의 개인성과 자유를 옹호하고 자 했다고 할 수 있다.⁴²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는 초감각적인 문장으로 젊은 남녀의 사랑을 상큼하고도 화사하게 그려낸 「젊은 느티나무」가 친족질서에 위배되는 이복 남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당대 독자들의 열광을 끌어낸 것은 공동체주의로 환원될 수 없는 개인성에 대한 발견과 긍정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정숙하고 착한 딸들이 각각의 이유로 혼자가 된 후 아버지가 지은 위엄이 넘치는 집에서 하루하루 몰락해가는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그린 「양관」은 끈적하고도 기괴한 강신재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착한 딸들을 금치산자와도 같은 무기력함, 즉 죽은 인간으로 길러내는 가부장제에 대한 도발적인 상상력이라는 점을 신비로우면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작으로 주목을 요한다.⁴³

그러나 “나쁜 여자”에 대한 재현 전략은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불온한 상상력이면서도 여성 육체의 상품화라는 가부장제의 부정성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전후 여성 의복이나 치장술에 관한 연구 자료가 될 만큼 강신재는 작중 여성들이 무엇을 입고 어떻게 꾸몄는가에 대해 자세히 묘사한다. 가령, “속히는 바이올렛 빛 원피스 자락을 나부끼면서 가볍게 아스팔트 위로 뛰어내렸다.”(「바바리코트」, 『문학예술』 1956.3)거나 “바이올렛빛 슈트를 입은 민영이가 검은 장갑을 낀 손”(「감상지대」, 『평화신문』 1955. 12~1956.1월)는 서술처럼 복장과 그 조화미를 묘사한 문장들이 부지기수다. 앞서 본 「해방촌가는 길」에서 기애가 미군과 연애를 시작한 이유는 부대 안에서 자신이 늘 진곤색 원피스를 입어 ‘미

42 젊은 날 남편이 가진 성적 매력에 끌려 결혼했지만 지금은 사랑을 “섹스가 일으키는 트러블이고, 일종의 하찮은 시정”이라고 조소하며 아편중독자가 된 남편이 죽기를 소망하는 「황량한 날의 동화」의 명순, 백합같이 깨끗한 이마를 가졌지만 어린 자식을 방치하는가 하면 애인 태호가 죽자 애도를 거부하듯 그를 부엌 바닥에 묻을 만큼 기괴한 정념의 소유자인 「C항 야화(夜話)」의 경애는 천사나 성모로서의 여성성을 침식하는 ‘점액질’의 욕망을 가진 여성들이다.

43 강신재가 「양관」에서 보여준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의 여성적 함의에 주목한 글로 다음을 참고할 것. 김미현, 「비누 냄새와 점액질 사이의 거리」,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강신재 소설선』, 문학과지성사, 2007, 427-428쪽 참조; 줄고, 「유미주의자의 글쓰기와 여성 하위주체들의 욕망—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앞의 책, 187-219쪽 참조.

스 준비'라고 사실을 알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다. 멋진 의복을 갖고 싶다는 것은 성매매에 나선 동기였던 것이다. 「야회」(『신태양』 1954.11)는 고위 명사들의 저녁 파티에 초대된 부르주아 여성들의 치장 경쟁을 통해 의복이 신분적 위계를 표현해주는 계급 재화라는 것을 암시한다.

의복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보다 가난한 여성이 자신의 육체에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함으로써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소설 속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를 돋보이게 할 의복과 늠름을 감추어 줄 수 있는 화장품과 보석에 관심을 기울인다. 여성의 외모에 따라 사회적 보상이 달라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권력의 근거가 되고 권력은 곧 자유의 원천이라고 여기는 것이다.⁴⁴ 이렇듯 젊음과 아름다움은 여성이 자유와 권력을 얻기 위한 필수재화처럼 여겨진다는 점에서 강신재의 소설은 여성에게 아름답고 관능적인 상품으로서의 위치를 강요해 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수락하는 함정에 빠진다. 「이브 변신」(『현대문학』 1965.9)의 늙고 못생긴 식모나 「눈물」의 타고난 추녀인 송점화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해 포악하고 잔인한 악녀가 된 것으로 그려진다. 외모의 아름다움/추함을 성격의 덕성스러움/포악함으로 유비함으로써 여성에게 아름다움의 코르셋을 강요하고 조화로서의 여성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강신재는 전쟁미망인, 양공주, 성매매 여성, 첩, 유한마담의 재현을 통해 탐욕스럽게 소비하고 에로스를 향유함으로써 사회를 위협하는 여성들을 그려냈다. 이 '위험한 여성'들을 단순히 타락한 여자가 아니라 가부장제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무질서 혹은 야수로 그려냈다는 점에 강신재 소설은 불온한 것이었다. 특히 자본 축적기인 1950년대에 청교도적인 금욕과 근면함이 여성의 도덕적 가치로 부상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사치, 유행, 패션, 유혹, 향락을 추구하는 사악한 여성들은 해방적인 의미마저 지녔다. 가부장제 사회는 소비하는 여자들을 남성을 유혹하여 파괴하는 아프레 걸, 즉 팜프 파탈의 이미지

44 「제단」, 「포말」, 「눈물」, 「향연의 기록」 등 반공주의 색채가 강한 작품들에서 작중 인물들이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강한 선망때문이다. 이 작품들은 강신재가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였다기 보다 문화냉전주의라는 시대의 맥락 속에서 '나쁜 여자'들의 '활약'을 서사화하는 데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로 부각했다는 점에서 금욕적 여성의 이미지에 저항하는 것이 소비하는 여성들의 정치성이었던 것이다. 소비하는 탐욕스러운 여성들은 애첩기질을 통해 남성을 경제적으로 착취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남성의 권위를 허물고 남성의 권력독점에 대해 보복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를 통해 자신의 몸을 물질적 욕망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매달리는 여성들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낮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줄 부유한 남자를 필요로 하고,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신체를 매혹적인 물신으로 만들어 줄 의상, 장신구, 화장품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로서 여성들이 자본주의 상품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근본 동력이 되는 한편으로 여성의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수락하고 공모해 왔음을 뜻한다.⁴⁵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성매매 여성, ‘첩’인 ‘나쁜 여자’들은 처에게는 정숙을 강요해 건전하게 가정을 관리하면서도 지루한 도덕의 세계에서 벗어나 일탈적이고 관능적인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부르주아 남성의 욕망과 공모해 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의식한 듯이 작가는 개발독재기에는 점차로 대중적 장편소설 작가로 변신해 색정적 편집증이라고 할 만큼 치명적인 악녀들이 재벌가 등 부르주아 가정에 침투해서 가문을 풍비박살 내는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문학 제도의 승인과 인정보다 하위 문화의 장에서 가부장제를 교란하는 이질적인 여성 주체들의 유희를 통해 대중성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5 결론

1950년대에는 식민지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성 작가들이 문단에 데뷔해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문단은 ‘저자=신’의 등식과 무관하게 여성작가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하기보다 어디까지나 ‘숙녀’로서 글을 써야 한다고 규제했다. 여성 작가들은 보수적인 문단의 질서에 순응하면서도 가부장제 사회에 반역을 가하는 여성 인물들을 통해 여성 글쓰기의 정치성을 드러냈다. 박경리는 한국전쟁 직후의 시간성을 여성의 주체성을 위협하는 가부장제의

45 임옥희, 앞의 책, 83쪽 참조.

귀환으로 포착하고 냉소적인 여성 지식인을 자신의 분신 삼아서 가부장제의 젠더 규범에 저항했다. 그녀의 여성 인물들은 화사하게 웃어 줌으로써 남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지성과 도도함으로 남성들을 좌절시키는 ‘냉(冷)미녀’들이다. 이렇듯 박경리의 지적이고 비타협적인 여성 인물들의 반대 편에 강신재의 농염하고 사악한 나쁜 여자들이 위치한다. 강신재의 분신들은 남자에 의지하지 않고 제 발로 서기 위해 사랑에 목숨을 걸기보다 사랑을 이용하고, 권력을 훔쳐내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치장하고 탐욕스럽게 소비하는 물신주의자들이다.

강신재는 해방기 소설에서 여성이 남녀 관계의 불평등성과 남성성 헤게모니를 유지시키는 제도로서 가정의 실체에 눈 뜨는 과정을 그린 페미니스트 각성의 플롯을 선보였다. 부인 내실의 글쓰기는 모든 욕망을 소거한 채 순종을 강요받는 여주인공들의 내면 속 미친 여자의 그림자로 우울하고 기괴한 분위기를 내뿜었다. 감옥과 무덤으로서 가정, 반복되는 가사노동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듯한 두려움, 남편의 감시와 규제에 대한 거부증 등 온순해 보이는 여성들의 이미지 표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분노와 반항의 에너지를 그려낸 것이다. 여기에는 근대화가 여성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기는 커녕 여성의 진정한 자아실현의 장이 ‘가정’인 양 기만함으로써 여성들을 내실에 고립시켰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 해방이 되었지만 여성들은 근대적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사회계약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녀의 소유주로서 남편의 처분에 맡겨진 무기력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식구들을 먹여살리는 초(超)남성들이 집단적으로 등장하는 개발독재기에 이르면 강신재의 소설에는 관능적 유희으로 남자들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여성 색정증자들의 무대가 된다.⁴⁶

46 스티븐 형식의 안티로맨스서사인 『숲에는 그대 향기』(1967)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숨긴 병리성과 포악성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에서 희생자로서의 여성 위치를 알레고리화했다. 명문가 출신으로 의학을 공부하는 태식은 동물 해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약혼자인 두루미를 향한 변태적이고도 가학적 욕망에 사로잡힌다. 납치된 두루미가 태식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온몸에 상처를 입으며 숲을 달리는 장면은 ‘낭만적 사랑’에 대한 여성의 불안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가부장제가 이상화하는 규범적 여성성의 취약성을 일깨움으로써 강신재가 왜 악녀를 자신의 소설적 페르소나로 삼았는가를 풍부하게 암시한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강신재, 『희화』, 계몽사, 1958.
- _____, 『여정』, 중앙문화사, 1959.
- _____, 「한국 여류 작가의 위치」, 『사랑과 아픔과 진실』, 육민사, 1966, 282-3쪽.
- _____, 「이별·구원·그 이력」, 『월간문학』 제607호, 월간문학사, 1971, 258쪽.
- _____, 『거리에서 내 마음에서』, 평민사, 1976, 177-178쪽.
- _____, 『시간 속에 쌓는 꿈』, 혜화당, 1993, 107쪽, 144쪽.
- _____, 『강신재 소설 전집』(김은하 엮음), 현대문학, 2013.

단행본

- 김병익, 『한국문단사 1908-1970』, 문학과지성사, 2001, 250쪽.
-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154-181쪽, 129-153쪽.
- 박경리,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나남출판, 1994, 128-146쪽.
- 양윤모, 「전쟁과 사랑을 통한 현실인식: 강신재론」,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커뮤니케이션스, 1994, 361쪽.
- 여성사 연구모임 길박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135-144쪽.
- 이상경, 『나해석 전집』, 태학사, 2000, 187-188쪽.
- 임옥희, 『메트로폴리스의 불온한 신여성들: 1920년대 런던,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를 배경으로』, 여이연, 2020, 7-20쪽.
- 천정환·소영현·임태훈 외,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한국 현대 문학사의 해체와 재구성』, 푸른역사, 2013.
- 리타 펠스키,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여이연, 2010, 98쪽.
- 버지니아 울프, 이미애 역, 『자기만의 방』, 민음사, 2006, 100쪽.
- 베티 리어든, 정희진 기획·감수·해제, 황미요조 역,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

온다』, 나무연필, 2020, 10-12쪽.

캐서린 H.S.문, 「한미 관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의 몸과 젠더화된 국가」, 일레인 H. 김·최정무, 박은미 역.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188쪽.

논문

김미현, 「비누 냄새와 점액질 사이의 거리」, 『깊은 느티나무: 강신재 소설선』, 문학과지성사, 2007, 427-428쪽.

김은하, 「문학 정전의 해체와 재구성: 여성 글쓰기의 기원과 정체성을 찾아서」,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60-86쪽.

_____, 「유미주의자의 글쓰기와 여성 하위주체들의 욕망—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187~219쪽.

마정윤,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여성관련 법제화와 축첩제 폐지운동」, 『이화젠더법학』 제8권 3호, 2016, 160쪽.

박정미,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사회와역사』 제94호, 사회사학회, 2012, 261-295쪽.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1-152쪽.

심진경, 「전쟁과 여성 섹슈얼리티」, 『현대소설연구』 제3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74쪽.

엄미옥, 「한국전쟁기 여성 중군 작가 소설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0, 261-292쪽.

연남경, 「현대비평의 수립, 혹은 통설의 탄생—1959년 백철과 강신재의 논쟁에 주목하며—」, 『한국문화연구』 제36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9, 39-78쪽.

염무웅, 「5,60년대 남한문학의 민족문학적 위치」, 『창작과비평』 제78호, 창작과비평사, 1992, 50-64쪽.

abstract

1950s and Gender politics of a bad woman
: Focusing on Kang Shin-jae's early short stories

Kim, Eunha

Compared to the colonial era, the 1950s was the Renaissance period of women's literature, when more female writers made their debut and took a position in the literary world and the reading market. However, women's literature in the 1950s was not actively evaluated due to gender politics named "Bourgeois Girls' Style." In addition, writers such as Mo Yoon-sook, Choi Jung-hee, Jang Deok-cho, and Song So-hee, who dominated the women's literature world, began cultural activities to praise "masculinity as a warrior" and actively induce participation in the war by mobilizing the power of discipline, and sought to form a Cold War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it can be said that emerging female writers such as Kang Shin-jae and Park Kyung-ri formed the identity of women's composition by taking issue with the oppressive reality faced by women during the Cold War, when the ideals of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were frustrated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nd sexism was activated as if it were the normal order of society.

This article examines Kang Shin-jae's early short storie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acquiring the author's "authority" of female writers and the orthodonization of female literature, as part of the re-reading of Korean women's literature after "Feminism and Reboots." Kang Shin-jae has been praised as a female writer who portrays the fate of women with feminine sensitivity and bourgeois sophistication. However, the writer himself says that he is not interested in the fate of women and that he is "interested in capturing a decisive moment, as if he were writing a report on human life." Kang Shin-jae, like an evolutionary psychologist, prefers to portray women who disrupt the moral code of society through strategies of competition and temptation. However, Kang Shin-jae's novel is definitely divided from evolutionary theory in that the same sex competition and sex strategy, such as temptation and jealousy of other sexes, are unrelated to successful couples, i.e., struggles for race breeding. The pursuit of sexual pleasure unrelated to breeding goals can be said to be a strategy for liberating women to refuse to follow women's sexual norms and to stand outside the patriarchal system.

Key words: Kang Shin-jae, 1950s, female writers, women's literature, bad women, anthology, author, etc.

본 논문은 2020년 7월 23일에 접수되어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8월 2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